

서가에서 별이는 '잡학의 향연'

책을 사랑하는 다섯가지 방법

주강현 | 우리민속문화연구소 소장

그해 여름 시베리아에서 돌아왔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오랫동안 잠가뒀던 터라 여름 장마의 비린내가 물씬하고 주인이 썼던 물건들이 낯설게 다가왔다. 나는 책꽂이의 빈 공간을 하나씩 채우기 시작했다. 무려 50여권의 중요한 자료들을 가방에 넣어왔다. 삶의 즐거움이란 이런 것일까. 이 책은 과학원의 고고학자에게 받은 책이고, 저 팸플릿은 사하정부 문화성에서 건네준 화보집이고, 아 저것은 참으로 귀한 건데... 여행담을 정리하듯 서가를 채워나가는 마음은 어느 사람보다 학인이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유일의 기쁨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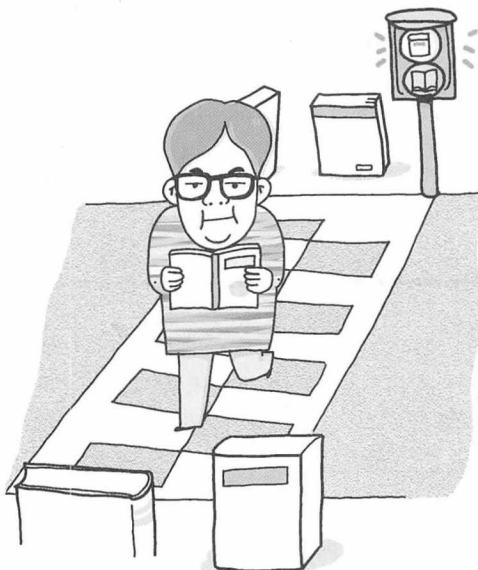
내 책사랑법은 나름의 법칙이 있다. 간혹 나의 독서법을 묻는 이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잡식성'이라 잘라 말한다. 나는 그야말로 잡식성이라 어쩌면 책에 관한 한 특별한 '미식가'는 아닐 것 같다. 나는 어떤 책이건 좋은 책은 그저 좋다. 그러나 잡식성이라고 해서 책의 맛조차 모르고 게걸스럽게 먹기만 하겠는가. 몇가지 냉정한 원칙은 있다.

선택 1. '원전이 좋다.' 전공분야 책이라도 무조건 사지는 않는다. 그야말로 책도 책 나름. 전공분야책은 가능한 한 원본이나 자료집을 선호한다. 두툼한 원본에 담긴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성구(聖句)들은 독서열과 집필열을 불러일으키고 만다. 다양한 해석서와 비판서의 미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후일담보다는 원전이 좋다.

선택 2. '보기 좋은 책이 읽기에도 좋다.' 이 점은 참으로 중요하다. 나는 참으로 바보처럼 책을 사두는 버릇이 있다. 나와 전혀 전공이 다른데도 책의 모양새가 뛰어나면 무심결에 사고 만다. 디자인에 현혹돼 번지르르한 책을 사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 책에도 품격이 있다. 품격 있는 책이 좋다. 그래서 때때로 꼭 필요한 책이건만 참으로 '후지계' 만들고, 값은 불필요하게 매겨진 책과 그 책을 짚은 출판인을 볼 때면, 화도 나고 심지어 그 출판인을 훗날 만날 일이 있어도 내심 '이 좋은 책을 저렇게밖에 못짜다니!' 속마음을 감춰두고 만다.

선택 3. '현장을 중시한다.' 사변적인 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현장의 기록에 충실한 책을 존경한다. 어느 촌부가 쓴 일기책이라도 삶의 체취가 분명하고 역사성이 뚜렷한 책을 신뢰한다. 어정쩡한 담론은 성에 차질 않는다. 현장의 생생한 기록이야말로 독서의 행간을 뛰어넘는 생동감을 연구실에 불어넣기 때문이다.

선택 4. '습관적으로 책을 모아둔다.' 관심있는 신간을 제때 모조리 구입할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으련만, 자금문제도 여의치 않을 뿐더러 도서관 차릴 일도 아닌 바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 그러나 엄선을 거쳐서 꼭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책들은 사야만 한다. 그런데 정작 그 책을 사오자마자 읽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저 가까이에 꽂아두고 만지작거리기만 한다. 언젠가 인생을 사노라면 가깝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으려니 하고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볼 뿐이다. 때로는 그 습관성이 병이 되기도 한다. 잔병치레 정도로 끝내기 위해 '엄선'이란 명제를 늘 염두에 둔다.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선택 5. '기회가 오면 전투적으로 읽는다.' 나의 독서습관은 저술활동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기회가 있으면 저술방식에 대해서도 진술할 일이 있겠지만, 나는 보통 10여가지 책을 쓸 준비를 늘 갖추고 산다. "또 책을 내셨어요?" 하는 질문을 받으면, "오래 준비한 책예요" 하고 답변한다. 그래서 내가 낸 책의 대부분은 아무리 짧아도 5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친 책들이다. 그러다가 어느 특정 책이나 연구의 시점에 다가오면, 그야말로 전투를 벌인다. 그 주제와 관련된 모든 책들은 화려한 각광을 받는다. 물론 출판이 끝나고 나면 쓸쓸하게 퇴장해야 할 운명들이다.

선택의 방식이 위의 다섯가지뿐이겠는가. 열두가지가 될 수도 있고, 아홉가지로 저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좋다. 책이 좋고, 책을 직업적으로라도 읽어야 할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주어진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만들겠다는 생각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야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고 사들이고 복사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발한 책꽂이관리법이 있다. 컴퓨터 뒤에 있는 책꽂이 한개의 중간층은 가능한 한 비워둔다. 현장지휘부가 있는 작업장인 셈이다. 반년 동안 집중적인 작업에 필요한 분야의 자료들은 책이나 파일이나 모두 한줄로 세워놓고 집중적인 비판과 해석에 몰두한다. 그리고, 큰 책상 바로 위에는 슬라이드북이 수십권 꽂혀 있다. 필요할 때마다 즉각 사진도판을 펼쳐보기 위해서다. 앞뒤로 전투를 하는 셈이다.

북한 사회문화에 관련된 책을 펴내면서 틈틈이 모아둔 복사철도 서가를 채우고 있다. 《조기에 관한 명상》을 쓰면서 모아둔 해양서적, 《우리문화의 수수께끼》를 쓰면서 모아둔 다양한 민속지들, 《마을로 간 기록》을 쓰면서 모아둔 불교관련 서적들... 그래서 내 서가는 '잡학의 향연'이다. 잡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속학·인류학·종교학·미학·신화학·해양학·역사학·고고학·미술사·불교사·북한학·사회경제사 등이 서가의 주류를 형성한다. 역시 이 분야들이 내 관심의 폭인가 보다.

그렇지만 70년대를 청년으로 보냈고, 4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를 산 이들이 대개 그렇듯이 사회과학의 진지한 세례를 받은 탓에 역시 내 서가의 옛 책들 중에도 마르크스 선생이나 그의 아우들이 쓴 책들이 많다. 정작 이 분야의 책은 내질 못했다. 그래서 빛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기를 놓쳐버렸다. 그렇지만 그 독서의 밑바탕이 어디 사라지고 말았겠는가.

문학도 그렇다. 청년시절에 문학한다고 하면서 즐겨 모았던 시집들, 희곡집과 프린트본 옛 대본들 역시 기억의 저편으로 넘어가 서가의 귀퉁이에서 잠들고 있다. 때때로 '잠든 영혼'을 불러들이듯 옛 시집을 읽는 즐거움이야말로 '전투상황'을 벗어난 한가로운 독서의 한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책들은 쓸쓸함과 화려함의 축제로 연출되고 만다. 한때는 지극히 사랑받았던 책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쓸쓸하게 서 있고, 지금은

각광받으면서 화려함을 뽐내는 책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삶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책들의 운명도 책주인의 운명과 더불어 나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 가장 기쁠 때는 그 쓸쓸함과 화려함의 축제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묶을 순간이다. 전혀 상관없는 책을 집필하고 있을 때, 그야말로 전혀 상관없을 것만 같았던 분야의 책에서 '진인'을 만나 번득이는 재치와 생동감 있는 인용을 하게 됐을 때, 그들 쓸쓸함과 화려함은 하나가 돼 다시금 태어난다.

세상살이도 그런 것 같다. 잠시 접어두고 잊었던 이데인데 아주 소중하게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면 사람보다 책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갑자기 만나자면 혹시나 상대방이 '의심'이라도 품게 될 것 같아 짐짓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나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만을 얻어낼 요량으로 만난다는 느낌이라도 줄까봐 그저 술잔으로 첫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책은 그렇지 않다.

어쩌다 10년만에 만난 책도 예전처럼 친절하게 다가온다. 오히려 새로 구입한 책보다도 더욱 친절하다. 아, 이 책을 샀을 때 종로거리로 거닐고 있었지, 저 책은 아무개가 냉면 먹으면서 사인해준 책인데, 그리고 서가의 꼭대기에 모셔진 저 전집은 참으로 당시로서는 거금을 들여서 6개월 할부로 구입한 책인데, 아 그리고 저 책은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구입한 책인데, 이 책은 당시로서는 금서로 묶여서 숨어가면서 보았던 책인데... 이런 미주알 고주알 같은 너저분한 추억까지 떠올린다. 그때 사랑하던 여인에게 받았던 책이라도 눈에 띄면 잠시 눈을 감고 그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담배 한모금의 추억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책 역시 냉정하다. 사람의 세상살이가 마냥 추억으로만 살 수 없듯이 냉정한 측면도 많다. 10년 전에는 그렇게 감동받았던 책인데 10년 뒤의 느낌이 동일할 수 없다. 자신의 성장일 수도 있고, 시속의 변화 탓일 수도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고가로 구입했는데, 시디롬이 출현해 사실상 '압살' 당했다. 종이책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나는 종이책을 함께 본다. 컴퓨터 조판활자의 화려함과 세련됨이 좋기는 하지만, 납활자본으로 찍은 책의 소박함과 진실됨도 좋다. 여러 권의 책을 발간하면서, 초기에 펴낸 두권의 책을 당시로서는 마지막이었던 납활자로 발간했는데, 그 책들에 무한한 애정을 품고 있다. 컴퓨터와 납활자, 종이책과 시디롬의 변별성도 결국은 쓸쓸함과 화려함의 간극인 것 같다.

그 쓸쓸함과 화려함을 가로지르면서 우리들은 우리들 시대 책읽기의 '무단횡단'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나의 독서법을 너절하게 소개한 이유도 바로 이같은 무단횡단의 한 경험담을 알려주자는 뜻이었으니! ●